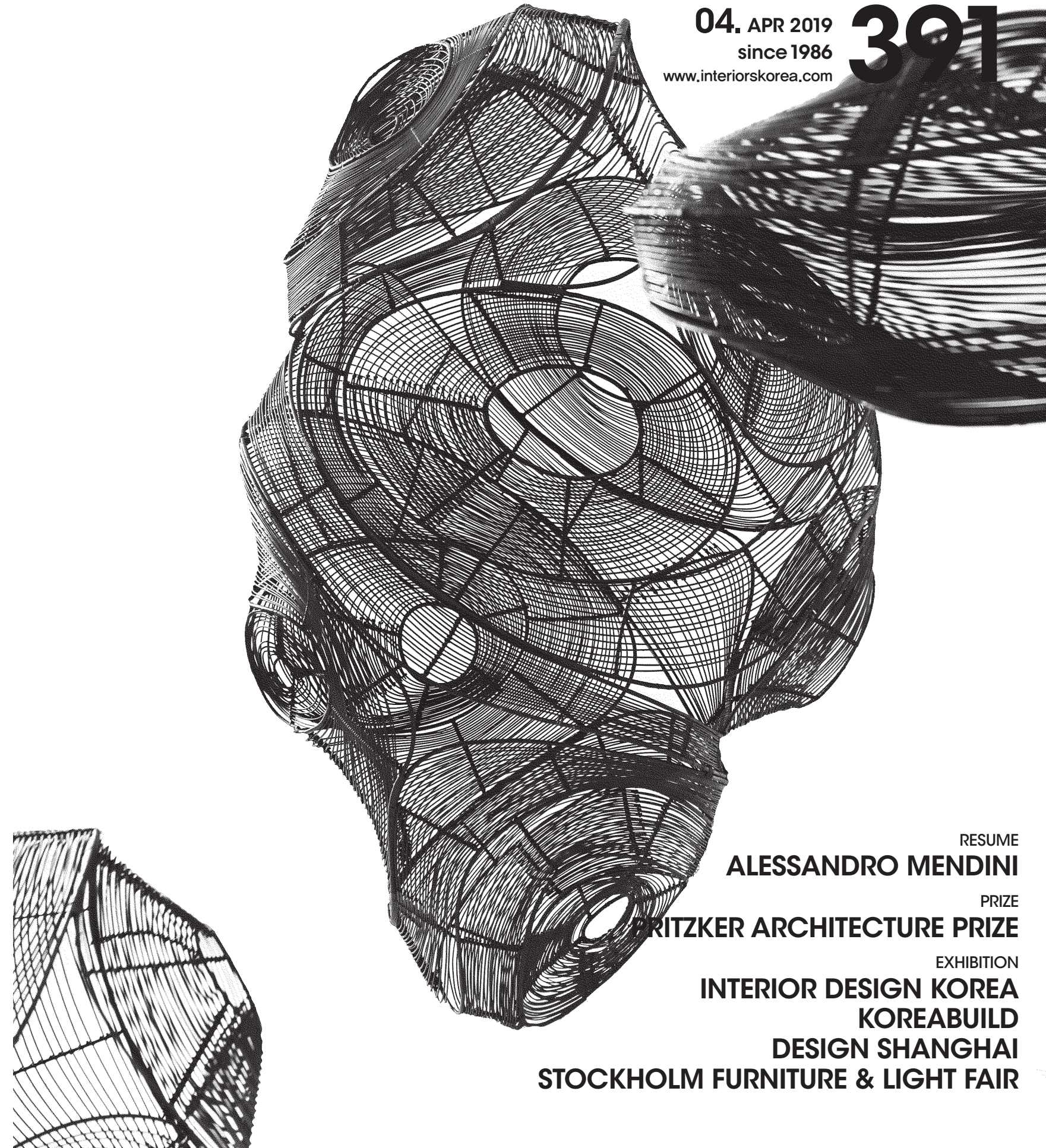


# INTERIORS

04. APR 2019  
since 1986  
[www.interiorskorea.com](http://www.interiorskorea.com)

391



RESUME

ALESSANDRO MENDINI

PRIZ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EXHIBITION

INTERIOR DESIGN KOREA  
KOREABUILD

DESIGN SHANGHAI

STOCKHOLM FURNITURE & LIGHT FAIR





피렌체

## 이탈리아 디자인을 말하다

글 · 사진 최지혜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위도에 위치하여 유사한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온대기후 나라이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반도의 끝자락에 섬이 있다는 것조차 닮았다.

사실 이탈리아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지는 그리 오래지 않았다. 1861년에 공식적으로 통일된 군주국, 즉 국왕이 존재하는 단일국가가 되었고, 1946년에 공화정이 되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가 각기 존재하고 있었고,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 섬은 모두 독립적인 왕국이나 공화국이었다.

남북으로 긴 형태의 반도국에 위치한 각 도시들의 지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은 각 도시를 매우 고유한 풍속과 문화, 심지어 디자인의 관점에서도 구분시키는 역할을 했다.

밀라노, 피렌체, 로마, 시칠리아 외에 베네치아, 제노바, 나폴리 등 중요한 도시들이 많지만, 이 대표적인 도시들의 디자인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시칠리아를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밀라노는 금융업과 더불어 지식산업, 최신기술과 연계된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가깝게 위치한다는 장점도 있고, 타 도시들과 달리 진부한 전통이나 귀족의 줄을 타고 발전하기보다 산업혁명 시기에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이를 발굴하면서 성장한 부르주아 계급이 주가 되어 성장한 도시이기도 하다. 패션을 비롯하여 가구, 출판, 디자인 산업에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로 꼽힌다. 특히나 밀라노가 기획하는 박람회는 규모뿐만 아니라 영향력에 있어서 패션, 가구 그리고 디자



인과 연계된 각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인정된다.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최신 경향과 동향을 파악하거나 분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참관, 참여의 장이 되었다.

피렌체는 재생, 부활이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르네상스의 발생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탄생하고 도시 재력가들의 후원에 의해 걸작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두 세기 전에는 가족 제품을 비롯한 수준 높은 수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의 공방들이 즐비하기도 했다. 현재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말이다.

이탈리아의 원단이나 패션산업도 원래는 피렌체가 중심이었다. 지금도 Pitti라는 박람회가 패션업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Gucci, Salvatore Ferragamo 등이 피렌체를 기반으로 하는 패션기업이고, 가족으로 제품을 만드는 공예학교와 중요한 예술대학이 있으며, 예술작품 복원과 순수예술 분야에 관련된 수준 높은 업체들이 존재한다. 한 예로, Zecchi 라는 화방은 르네상스 시대에 출간된 서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물감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최초의 제약, 제약소인 Santa Maria Novella라는 400년 된 브랜드도 피렌체에 위치한다. 고전적인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도시로서, 도시 자체가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서 행정의 중심지인 동시에 서구문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로마 제국의 역사와 흔적을 품고 있다. 이 거대한 유산이 실질적으로는 이 도시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현재 로마의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로는, 영화산업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37년에 설립된 Cinecittà는 유럽 최대의 영화촬영소이다. 1960~70년대 전성기를 지나고는 쇠퇴하였지만, 그 존재로 인해 영화배우, 감독을 비롯하여 영화, 연극 관련 예술인이 모여 있는 도시가 되었다. 영화예술인들 취향에 맞는 매우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부티크 등이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장신구 브랜드 Bvlgari, 고급 이발소, 모자 제작소 등을 볼 수 있다. 디자인이 어떠한다고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모던함보다는 전통적이고 글래머러스한 취향이 있는 도시임은 분명하다.

시칠리아에는 인류가 최초로 정착했던 시기의 고대문명, 특히 그리스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이후 아랍, 노르만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지배하기도 하였다. 이런 다양한 문화가 겹겹이 쌓인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 전반의 취향이나 전통과는 구별되는 것들이 다수 발견된다. 음식과 의상을 비롯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에 적용되는 밝고 화사한 문양들과 자연요소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고대 그리스문명은 지금도 건축가들이 연구하는 대상으로, 규모나 운영 면에서 이상적인 도시의 원형이었고, 당시 건축한 원형극장은 시러쿠스, 타오르미나에 남아 있어 오늘날에도 공연이 이루어지는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섞인 시칠리아는, 사실 철저한 인공의 산물인 '디자인'과는 조금 동떨어진 도시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건축물, 전통 가옥과 그 인테리어디자인이나 지역 상점들에서 볼 수 있는 특성들, 자연의 요소와 오묘하게 결합된 특정 제품은 어느 디자인 제품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시칠리아 섬은 자연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 오면서 공들여 만들어낸 산물들이 틀림없기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밀라노



로마



로마



시칠리아





© Made a Mano.it

## Caltagirone, la città di ceramica, da ceramica per la ceramica 도자기의, 도자기에 의한, 도자기를 위한 도시 칼타지로나

‘Made a Mano’는 시칠리아의 향을 품고 있으면서 모던한 재해석을 통해 발전한 핸드메이드 디자인 브랜드로서 에트나 섬의 용암석(Pietra Lavica)으로 만든 타일과 제품으로 특화되었다. 용암석의 견고하면서도 우아한 색상과 재질을 최대한 살린 제품들을 기반으로 그 위에 도자기를 빚고 굽는 작업공정을 적용하여, 일반 도자기 타일과 더불어 용암석 도자기 타일을 탄생시켰다. 이 외에도 테이블이나 조명 같은 디자인 제품을 제작한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라는 말이 세상에 나온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의식 있는 디자이너들, 공예가들은 이 방향을 염두하고 창작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훌륭한 아이디어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손으로 혹은 새로운 툴을 활용해서 아이디어에 준하는 오브제가 탄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것이 현재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 최지혜 디자이너

서울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에서 공예를 전공, 공간디자인을 공부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도무스아카데미에서 인테리어, 리빙 디자인 석사를 마친 후 거장 디자이너 데니스 산타끼아라 스튜디오에서 인턴을 거쳐, 2007년부터 밀리오레 페르베토 건축사무소와 협업하고 있다. 2012년 이탈리아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밀라노공과대학에서 건축도시디자인과 박사과정에 진학, 2018년에 박사학위를 획득하였다. 현재 밀라노 스튜디오 MAGMA 대표이자 건축가, 디자이너로서 개인 프로젝트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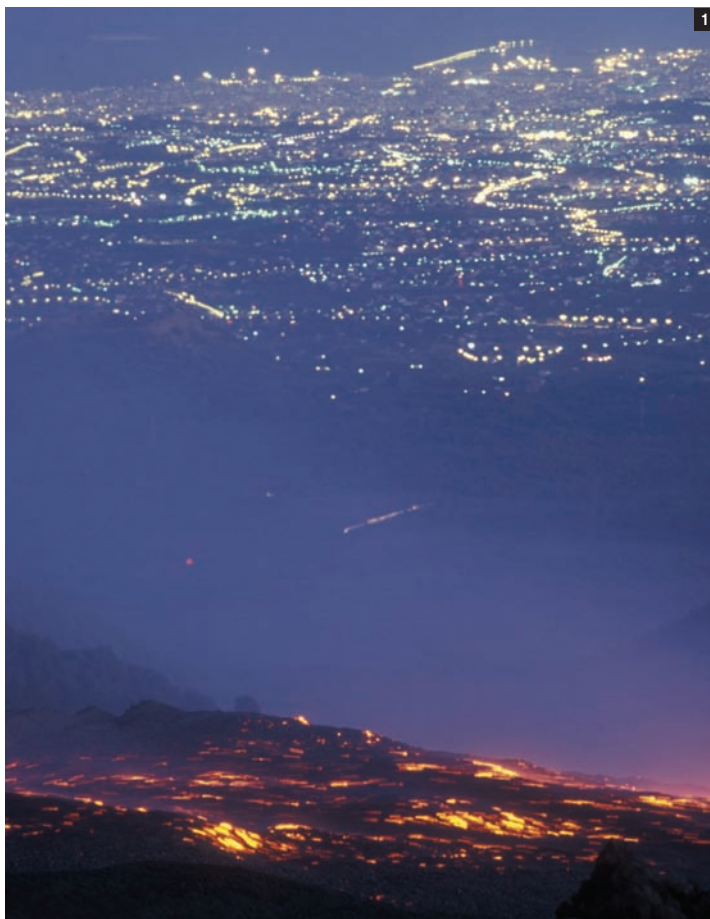


대한민국에 화산섬 제주가 존재한다면 이탈리아에는 시칠리아가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규모와 그 역할을 고려했을 때 시칠리아는 높은 영향력과 중요도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도 용암을 분출하는 활화산인 에트나는 시칠리아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며 유네스코문화유산이다. 일본 후지산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산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지중해 최대의 섬이기도 하다.

시칠리아는 현재 이탈리아 20주 중에서 거주 인구상 세 번째로 큰 주이고,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문명으로부터 로마문명, 아랍-노르만문화의 흔적들이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거나 혼합되어 공존하며 매우 독특한 문화, 건축, 예술을 만들어내는 지역이다.

주도인 팔레르모와 시라쿠자 등은 과거에 유럽에서 가장 강성했던 도시들이기도 하다. 물론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는 휴양지인 타오르미나와 이스피카, 레반소 같은 작은 섬들은 현재에도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람페두사 섬은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230km 거리의 이탈리아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토끼들 해변(Spiaggia dei conigli)'이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선박을 통해 유럽으로 상륙하려는 다수의 이주민들이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말이다. 시칠리아는 제주도 면적의 약 3배정도 되는 큰 섬인데다가, 다수의 문명이 지나친 지역이라서 소개할 만한 유적들이 무궁무진하다.

이 지면을 통해 시칠리아를 소개하게 된 것은 지난 5년간 이 섬을 여행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느라 여러 번 오가면서 잘 알게 된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데서 비롯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것과 인공적인 것에 열광하는 우리 디자이너와 건축가에게 우리가 만드는 인공의 것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더 오래가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1\_2\_ 에트나 화산, ©Giuseppe Leone

3\_ 시칠리아







첫 번째 소개할 곳은 시칠리아 중앙, 남쪽 카타니아 현에 속한 칼타지로나(Caltagirone)라는 도시와 도자기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도자기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도시 공공 건축이나 시설물이 모두 도자기로 장식되어 있다.

도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공원이나 주요 건축물이 도자기로 장식되어 있고, 옛 도심에는 모든 단이 각기 다른 이야기와 문양으로 마감되었다. 142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130m가 넘는 몬테의 산타마리아 계단(Scala di Santa Maria del Monte)의 양 측면에는 도자기 상점들이 즐비하다. 이 외에도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작은 공작소, 상점, 공장 등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다.

4\_5\_ 칼타지로나 도시의 표지판과 솔방울 장식. 옛 도심에 자리한 교회, 중요한 빌라들, 도시의 아이콘이 된 계단 등의 표지판도 도자기로 제작되어 있다. 꼭대기 부분을 장식한 것은 솔방울로, 예로부터 불멸과 영속성을 의미한다. 출입구나 발코니의 모서리를 장식하기도 하는 이 솔방울은 시칠리아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오브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6\_7\_8\_ 몬테의 산타마리아 계단. 1606년 옛 도시와 새로 구축한 신도시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건축된 계단이다. 현재는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로서 각종 행사 때 조명과 꽃으로 장식된다. 계단과 경사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1844년 건축가 살바토레 마리노(Salvatore Marino)가 142개의 계단으로 재건축하였고, 1900년대 중반에 칼타지로나 도자기 장인들이 장식했다.







도시 곳곳에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공예가와 다른 예술가의 작업실들도 있고, 실내의 장식 타일 같은 마감재를 산업제품으로 제작하는 브랜드들도 있다. 2,000년 이상 지속된 도자기 제작 전통은 시칠리아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매우 유명하다.

그 중 'Made a Mano'는 시칠리아의 향을 품고 있으면서 모던한 재해석을 통해 발전한 핸드메이드 디자인 브랜드로서 에트나 섬의 용암석(Pietra Lavica)으로 만든 타일과 제품으로 특화되었다. 용암석의 견고하면서도 우아한 색상과 재질을 최대한 살린 제품들을 기반으로 그 위에 도자기를 빚고 굽는 작업공정을 적용하여, 일반 도자기 타일과 더불어 용암석 도자기 타일을 탄생시켰다. 이 외에도 테이블이나 조명 같은 디자인 제품을 제작한다.

문양과 색상, 그리고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공간 연출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역 생산품들을 연구하고 제작한다. 규모가 꽤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양 넣기와 굽기 등의 과정은 수공으로 진행한다.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있지만 기성품이 아니고 주문제작품이다.

9\_10\_ 도자기로 마감한 대성당의 돔과 빌라의 입구. 도시 내 대성당 돔, 도시 곳곳의 상점이나 주거지 입구, 벽면 등이 도자기로 장식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1\_ 'Made a Mano' 칼타지로네 도자기 공장. 에트나에서 가져온 용암석을 재단하여 다양한 크기의 타일과 오브제들을 제작한다.

12\_ 'Made a Mano' 칼타지로네 도자기 공장. ©Made a Mano.it







시칠리아의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한 제품을 만든 드문 예이다. 클래식한 타일이나 도자기 제품들은 언제나 매력이 있지만, 현대적인 공간이나 분위기에도 상충되지 않고 어우러지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게다가 그 깊이 숨겨 있는 전통이나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시도가 더욱 그렇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세상에 나온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의식 있는 디자이너들, 공예가들은 이 방향을 염두하고 창작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훌륭한 아이디어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손으로 혹은 새로운 툴을 활용해서 아이디어에 준하는 오브제가 탄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Made a Mano’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오랜 고심 끝에 현대적인 디자인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들과의 협업, 밀라노로의 진출, 그리고 클래식한 제품을 탈피한 오브제들을 제작하는 시도를 다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3\_14\_15\_ ‘Made a Mano’ 칼타지로네 도자기 브랜드 제품들. 건축의 내외장재인 타일로부터 용암석으로 제작한 세면대, 간단한 다과나 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타일형 받침대까지 제품의 영역을 차츰 넓혀 가고 있다. ©Made a Mano.it

16\_ ‘Made a Mano’ 칼타지로네 도자기 브랜드 제품들. 전통적인 도자기 타일의 문양과 색상을 재해석하여 탄생한 시리즈들로 만든 아일랜드형 키친 ©Made a Mano.it







'Made a Mano'의 창립주 로사리오 파리넬로(Rosario Parrinello)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이나 시칠리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칼타지로네 역시 젊은이들의 부재로 지역의 전통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수할 만한 인력을 찾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디자인작업보다도 고안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제작할 인력의 부족, 즉 머리는 있지만 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에는 아카데미나 다양한 종류의 국제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제품제작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무언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변화가 필요함을 새삼 깨닫는다. 전통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적용한 이 제품들은 시칠리아보다는 그 외의 지역에서 더 많은 주문 요청이 있어서 시칠리아만의 아우라를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화사하고 강렬한 문양과 색상은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으며, 용암석으로 제작한 제품들은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촉감과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이 제품들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최종 단계의 수공예 작업, 그리고 그 공정상 똑같은 타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구울 당시 외부의 온도, 습도나 기타 상태에 따라 색상이나 문양이 미미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연구하고 진화를 시도하는 것은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아닐까.



17\_18\_19\_ 'Made a Mano' 칼타지로네 도자기 브랜드의 제품에 수작업으로 문양을 입히는 제작과정이다.

20\_ 'Made a Mano' 칼타지로네 도자기 브랜드의 제품으로, 용암석 베이스에 도자기 굽기로 마감한 소파 테이블 디자인 오브제이다. ©Made a Mano.it